

여수국가산단 화학산업 탄소중립 허브로 거듭난다

45만㎡ 규모 미래혁신지구 조성... 연구·안전 기관 집적화 통합관제센터 구축, 환경오염·안전사고 최첨단 관리·감시

준공된지 57년 된 여수국가산단단지 '여수미래혁신지구'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룰 화학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여수국가산단단지 삼동지구(주삼동) 45만㎡(13만6000평) 일대에서는 '여수미래혁신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수산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사업 단지가 진행되고 있다.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3933억원이 들 전망이다. 연구기관 7곳과 안전분야 기관 3곳, 인력양성기관 2곳 등 15개 주요 기관이 입주했다. 지난해에는 여수미래혁신지구에 전남 첫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문을 열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소해 화학산업의 핵심인 분자·소재·부품·안전분야의 기술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여수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산단 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기술 개발 ▲탄소 포집 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여수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여수시는 여수미래혁신지구를 여수산단에 특화된 연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인재 양성·연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여러 기관을 한 곳에 집적화할 방침이다.

'여수국가산단단지 지원기관 협의회'는 반기별로 회의를 열어 미래혁신지구 입주 기관들과 기관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단지 활성화 증진기 발전전략'도 세워 미래혁신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중심 산업 생태계를 저탄소, 지능형,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산 산단을 연계해 1조2000억원 규모 34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의 오래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단지에 '여수미래혁신지구'와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추진하며 새 도약에 나섰다. 삼동지구(주삼동) 45만㎡(13만6000평)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여수미래혁신지구 전경. <여수시 제공>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손보고 있다.

여수시는 산단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석유화학 중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수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산단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해 차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개선·주차장 신설·산책로 조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은 그간 중화학산업을 중추로 여수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신성장의 기회로 삼아 여수국가산단을 동북아를 선도하는 친환경 화학산업 탄소중립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완도에 전국 지자체 첫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완도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사진)이 설치됐다.

완도군은 7일 완도산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산면 여서리에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완도해역의 방사능 정보를 전남도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완도군은 또 전복과 광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설 명절 전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화순경찰서가 7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청사 안에 열고 오는 4월26일까지 활동에 돌입했다. <화순경찰서 제공>

화순경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

80여일 총선 대응 체제 가동

화순경찰서가 7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80여 일간 본격적인 총선 대응에 나섰다.

현판식은 이날 오전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서 1층 통합수사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4월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관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품선경과 허위사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거상황실은 이날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24시간 즉응 태세를 유지한다.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우발상황에 초동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수사에 협조하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적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며 "선거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순천시 대표 상징물 23년만에 교체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위상 반영 시민 등 1000여명 참석 선포식

순천시가 23년 만에 새로운 상징물(CI·Corporate Identity)을 선보였다.

기존 상징물은 '낙안읍성'을 본떠 만들었다. 이번에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도시 위상을 반영하는 상징물을 기획했다.

순천의 영문명 속 'S'는 순천만 습지 물길과 함자가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상징한다. 휘감는 모습의 'C'는 문화·관광·경제·복지 등 전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는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뜻한다. 흑두루미의 검정, 오천광장 녹색, 순천만 주황, 짙푸른 파랑 등 순천 대표 지역자원에서 추출한 색을 입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4월 상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공청회와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견수령 과정을 거쳐 신규 통합 상징물을 확정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그린 아일랜드에서 '순천시 새로운 CI 선포식'을 열었다.

순천시민과 기관,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상징물을 확인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장은 어린이들과 새로운 상징물이 새겨진 시기를 기념했다.

노 시장은 "23년 만에 교체된 신규 CI는 순천 역사에 새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 신규 통합 상징물의 의미처럼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아일랜드에서 '순천시 새로운 CI 선포식'을 열었다.

순천시민과 기관,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상징물을 확인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장은 어린이들과 새로운 상징물이 새겨진 시기를 기념했다.

노 시장은 "23년 만에 교체된 신규 CI는 순천 역사에 새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며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 신규 통합 상징물의 의미처럼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고흥군 설 명절 연휴기간 구제역·AI 차단 특별 방역

고흥군이 설 명절을 맞아 구제역과 AI 유행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9일-12일)에 축협과 한우협회, 각 읍·면이 언제든지 가축 질병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의심가축 신고 등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고흥방목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귀성객의 왕래가 잦는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42개 게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SMS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 ▲마을 홍보 방송 실시 ▲설 연휴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소독 실시 ▲가축운반 차량 등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미부착, 미가동(고장 등) 일시 제거 및 전원 차단 등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군은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에 공동방제단 11개 단을 활용해 1일 3회 소독을하는 등 청정지역 고흥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AI 및 구제역은 가축의 질병이 생기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라며 "귀성객들은 축사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농가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